

다시 뛰자, 2009 희망 행진곡

(1) 국토 경비대의 신년 메시지



다 좋은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책략 및 상담관행

어두운 곳 빛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팔쇠가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 아침을 맞아 삼가 새해 인사드리며, 올 한해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과 날로 악화되는 청년실업, 실질소득 감소와 경기침체 속에 맞는 기축(己丑)년 새해는 서민들을 더욱 움추리게 만들고 있다.

가거도에서 “파이팅 대한민국!” 독도에서

최서단 가거도 레이더 기지 박성철 경위

“지난해에는 기름값 폭등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이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기름값과 불법 조업 걱정이 항상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어민들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5명과 전투경찰대원 44명(레이더 기지 24명·경비소대 20명)이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국토 최서단 해역을 지켜내고 있다.

어선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더하다. 박 경위는 “최근 중국 어선이 부쩍 많아지면서 풍랑주의보 등이 발효될 경우 많게는 500여척의 중국 어선이 피항해 오기도 한다”며 “일본의 도발로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영해를 지키는 측면에서는 가거도 독도 못지않다”고 말했다.

최동단 독도 경비대장 박병언 경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동해의 새해 첫 일출을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려운 경기 때문에 모두 힘들어 하는 국민께 조국의 최동단을 지켜낸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영토 수호에 나설 것입니다.”

당시 3.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박 경위는 그동안 울릉도 소대에 근무하다 오는 5일 독도에 들어가 3개월간의 독도경비대장 임무를 맡게 된다.

다. 해상 날씨 탓에 모든 여객선이 끊겨 한번 입도하게 되면 사실상 외부와는 단절이다. 겨울철 대원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



국토의 최서단 해역을 지키는 목포경찰서 가거도 레이더기지 대원들이 2009년 새해 건승을 기원하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박성철 경위.



2009년 첫 독도경비대장으로 부임하는 박병언 경위(맨 앞)가 독도에서 함께 근무할 울릉도 소대원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빈집 방화 추정 잇단 불... 모방범죄 확산 우려

주민 불안 속 본격 수사

광주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빈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구와 서구지역에서도 잇따라 빈집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방범죄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 빈집에서도 어린이들의 불량난으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목숨 건 귀순

北 일가족 4명 나무선박 타고 3시간 사투

북한 일가족 4명이 구급 30일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은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아들 C씨와 며느리 D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International Insurance (국제보청기) advertisement with tex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